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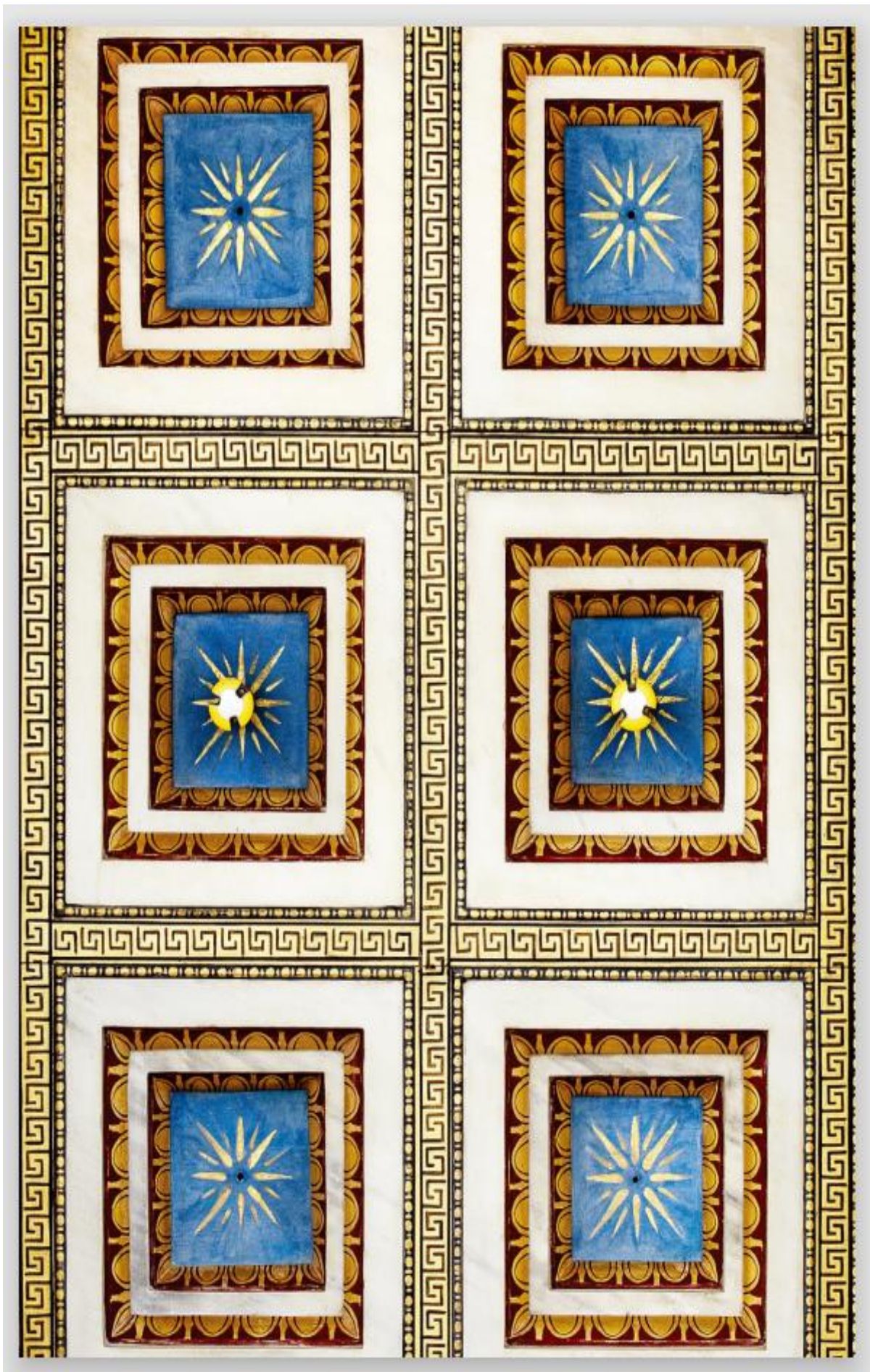


## 그리스 대표 문양, 메안더

'미앤더'라고도 부르는 뇌문(雷文) 장식 무늬 '메안더'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이지만 그 기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아테네를 방문해 그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았다.

# BENT BUT NOT BROKEN

The meander is an ancient Greek art motif that is recognizable to most everyone, although few know about its origins.  
A visit to Athens helps uncover its history.







‘강이나 도로 등이 구불구불하다’는 의미의 ‘메안더’는 구불구불 굽이쳐 에게 해로 흘러드는 터키의 멘데레스 강에서 유래한 단어다. 기하학 시대에 번성한 예술 양식의 일종인 메안더는 신전, 도자기, 갑옷 등에 장식적으로 활용됐으며, ‘그리스 열쇠 문양’ 또는 ‘그리스 뇌문’으로도 불린다.

과거 메안더 문양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충분히 규명된 상태는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문양은 영생, 무한대, 신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의미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사랑, 화합, 우정의 상징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문양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있던 크노소스 왕궁의 미로와 결부시키기도 한다. 오늘날 메안더는 미술과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데, 특히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채롭게 변주해 의상에 적용하면서 대중적인 장식으로 떠올랐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전과 동상은 밝고 생동감 있게 채색되었습니다. 빨간색, 갈색, 검은색, 황토색, 초록색 등이 사용됐지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건축물의 단조로움을 상쇄하는, 채색된 메안더 문양은 옛 아테네의 거의 모든 신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안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디미트리스 플란조스 교수의 설명이다.

The word “meander” can be traced back to Turkey’s Büyük Menderes River, historically called the Meander, which squiggles its way into the Aegean Sea. Part of a style that flourished during the Geometric Period, the Greek art motif of the same name was used as a decorative pattern on temples, pottery, armor and elsewhere. It is also referred to as “Greek key” or “Greek fret.”

Over the years, several interpretations have been bestowed on the meander, although these remain unsubstantiated by experts. For many, it symbolizes eternal life, infinity, the victory of man over God. For others, it is a symbol of love, unity and friendship. Others link it to the myth of King Minos’ labyrinth in Knossos, Crete. Today, the meander is also associated with fine art and fashion.

“Temples and statues were colored with bright, vivacious colors back then,” says Dimitris Plantzos, associate professor in classical archaeology at the 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Red, brown, black, ochre, green and Egyptian blue were among



**불변의 매력** 메안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 발전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깨진 메안더' 혹은 '갈고리 메안더'라 불리는 것으로, 선이 닫히지 않은 모양의 형태다. 더 복잡한 메안더 문양 중에는 '이중(二重) 메안더' '십자(十字) 메안더' 'T자 메안더' 등이 있다. 미술품 복원가 요르코스 파블로풀로스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메안더 문양은 십자 메안더로, 유명한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1870년대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것"이라며 "오늘날 이 문양은 과거 슐리만의 아테네 현지 저택으로 사용된 아테네 화폐박물관의 문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안더 문양은 그리스 남부 키클라데스 제도에 속한 섬이자 예게 해의 종교, 정치,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델로스 섬의 모자이크에서도,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펠라에서도 발견됐다. 플란조스 교수는 "이들 문양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된 것"이라고 귀렘했다.

메안더 문양은 초기 기하학 시대인 기원전 900~850년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 중기 기하학 시대인 기원전 850~760년에 제작된 선박에서 주요 문양으로 자리잡았다. 후기 기하학 시대인 기원전 760~700년에는 그리스 도예 기술이 정점에 달해 여러 가지 구불구불한 문양이 자연 문양 및 신화적 배경과 유기적

the colors used to break the monotony of the marble's white, and colored meanders could be seen in almost every temple, especially around the skirting boards. Meanders have also been discovered on headstones.

Meanders were designed in more than one motif. The simplest forms, called broken or hook meanders, have unclosed lines. More complicated meanders include the double meander and T-shapes. Art restorer Giorgos Pavlopoulos says, "The oldest ever recorded meandering pattern is the cross meander, discovered at the excavations of Troy by German archaeologist Heinrich Schliemann in the 1870s. Today, this pattern can be seen on the door of the Numismatic Museum in Athens, which used to be Schliemann's former residence."

Meandering patterns have also been discovered on the mosaics of Delos, an island in the Cyclades and an ancient center of religious, political and commercial activity, as well as in Pella, the capital of the ancient kingdom of Macedonia. "They were astutely designed in a way that made them look three-dimensional," explains Plantzos.

메안더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고대 문양이다. 길을 걷는 이의 옷에서도(왼쪽 페이지) 도자기나 장식용품(아래), 도심의 식당 간판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오른쪽).

The meander is an ancient pattern that is no less prominent in modern times. Today it can be seen on clothing (opposite), decorative goods (below) and on signboards of restaurants in Athens (right).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했다. 장례용 항아리인 '디킬론 암포라'가 오늘날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는데 이는 고대 장식을 볼 수 있는 유물 중 가장 훌륭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항아리는 메안더, 동물 문양을 새긴 띠로 둘러져 있다.

플란조스 교수는 "재미있는 점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조각과 공예품에도 메안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불상에서도 메안더 문양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안더 문양은 옷단과 소매에 수놓아지기도, 베일과 튜닉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여성이나 제사장의 공식 예복이나 군인 제복은 항상 메안더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됐다. 플란조스 교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동상을 덕분"이라며 "아크로폴리스의 코레상, 즉 소녀상들에는 베일 위에 손으로 칠한 메안더 문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안더 문양은 현대 미술가와 패션 디자이너들을 매료시켰고, 그들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를 응용했다. 잔니 베르사체도 그중 한 명으로 메안더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뿐 아니라 자신의 저택도 이 문양으로 장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베르사체 로고인 메두사 머리도 메안더 문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많은 이들에게 메안더는 화합과 사랑의 상징이다. 메안더 문양이 새겨진 보석류가 신혼부부 선물로 제격인 이유다. 메안더 문양은 뉴욕의 유명 종이컵 디자인인 앤서라에도 새겨져 있다. 고전과 현대적 스타일의 혼합은 대중 패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그리스 뇌문 디자인이 가정 생활용품에 응용되는 것 역시 드문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지극히 단순한 메안더 문양의 응용 범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 글 나탈리 레카 사진 아나스티시아 아디마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메안더 문양은 사랑, 화합, 영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장신구 디자인에도 자주 활용되며, 신혼부부 선물로 제격이다(왼쪽).

In addition to its simple elegance, many consider the meander a symbol of love, unity and eternal life, making jewelry that incorporates the pattern a popular gift for newlywed couples (left).

**TIMELESS CHIC** The meander began to take shape in the Early Geometric Period (900-850BC), while in the Middle Geometric Period (850-760BC), the pattern took a prominent place on the vessels that were produced. In the Late Geometric Period (760-700BC), Greek pottery-making reached its zenith, and the various meandering patterns were organically balanced with natural motifs and mythological scenes. The Dipylon Amphora, an intact monumental funerary amphora, conserved today in the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in Athens, is perhaps the best example of art from this period. It is covered with bands of meanders, birds and animal motifs.

"What's interesting is how, after Alexander the Great, the meander started to appear on sculptures and artifacts in Central Asia and India," says Plantzos. "We have even found statues of Buddhas with meanders."

Meandering patterns were also embroidered around clothing, and they adorned veils and tunics. Women's formal gowns and priests' and soldiers' uniforms were always decorated with meanders and geometrical patterns. "We know this because of the statues we have found. The Kore statues of the Acropolis had hand-painted meanders on their veils," explains Plantzos.

The motif has remained popular among contemporary artists and fashion designers, including Gianni Versace, whose logo itself is Medusa's head encircled by a meander.

For many, the meander is a symbol of unity and love, which is why jewelry with a meandering pattern is often considered a perfect gift for newlyweds. The meander has also found its way onto New York City's most iconic paper coffee cup, the Anthora. The blend of classical and modern styles has taken popular fashion to the next level, and it is not rare to see the Greek fret design being applied to household items, too. Timeless and deceptively simple,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e meander is almost endless. ☞ By Natali Lekka Photographs by Anastasia Adamaki





범접할 수 없는 왕가의 깊고도 진한 향기

# 스코틀랜드

대한민국 최초!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 취항!

매년 8월이 되면,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년 8월 5일, 12일, 19일 (금) 단 3회 출발

[주요 상품 안내] | 스코틀랜드 일주 9일  
| 품격 있는 스코틀랜드 일주 + 스카이스 9일  
| 아이슬란드 + 스코틀랜드 9일



## 찾아가는 길

로마, 이스탄불 모두 아테네 직항편이 있다. 아테네를 돌아다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항터미널을 빠져나르면 바로 지하철 역이 나오는데, 청색 라인을 타고 4~5분만 이동하는 데 40분 정도 소요된다. 모나스티라키 역에서 내려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 위치한 그림 같은 플라카 지구로 걸어보자. 신타그마 공장에서 적색 라인을 타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과 피르레네 신전을 방문할 수 있다. 모나스티라키에서 녹색 라인을 타면 피레우스 항구로 갈 수 있고, 더 차가운 크레타, 시모스, 산토리니 섬으로 갈 수 있다.

## 추천 숙박지

아테네에는 호텔이 수백 개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숙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5성급 호텔인 그랑드 브르타뉴([www.grandebretagne.gr](http://www.grandebretagne.gr))는 신타그마 공장에 위치한 아테네의 대표적 명소인 그리스 의회 건물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이 호텔은 19세기에 신고전주의 건축물을 많이 설계한 덴마크 건축가 테오필 한센의 작품이다. 그랑드 브르타뉴는 1874년 호텔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아테네에서 일어난 숭한 역사적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서 깊은 호텔이다. 이보다 좀 더 저렴한 숙소로는 플라카 호텔([www.plakahotel.gr](http://www.plakahotel.gr))이 있다.

## 추천 레스토랑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마식 경험을 원한다면 떠오르는 명소인 프시리 지구에 위치한 아르헨 게르시스([www.archeongelsis.gr](http://www.archeongelsis.gr))를 찾아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2500년 전에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 장식과 음악을 배경으로 한 이곳에서 숙을 채운 새끼돼지 요리를 먹고 포도주에 꿀을 탄 음료수 '오이노메'를 마실 수 있다. 단, 포크는 제공되지 않는다. 돼지 요리는 10인분으로 아홉 잔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모나스티라키 중심부에서 전통 아파식스를 원한다면 커피하우스 겸

레스토랑인 마이안드로스([www.maiandros.com.gr](http://www.maiandros.com.gr))를 추천한다. 이곳에선 매우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 그리스 생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주변 명소

아테네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일리아스 할라우니스 보석박물관([www.lalaounis-jewelrymuseum.gr](http://www.lalaounis-jewelrymuseum.gr))은 보석 및 장식 미술 전문 박물관이다. 금 조각 공예품을 다수 보유한 이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대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 해안터 문양으로 장식된 작품이 대다수다. 자연, 우주, 기술 등 다른 대상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품도 꽤 많이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로마로 주 4회, 이스탄불로 주 5회(5월 15일 이후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Rome four times and Istanbul five times a week (three times a week after May 15).



## GETTING THERE

There are direct flights to Athens from Rome and Istanbul. The best way to get around the city is the metro. There is a station just outside the airport terminal, and the trip to the city center takes about 40 minutes. Stop at Monastiraki Station to stroll around the picturesque Plaka quarter at the foot of the Acropolis. Take the red line at Syntagma Square to visit the Acropolis Museum and the Parthenon. Board the green line at Monastiraki to make your way to the Port of Piraeus and onward to islands including Crete, Samos and Santorini.

## WHERE TO STAY

There are hundreds of hotels in Athens, catering to all budgets. The luxurious five-star Hotel Grande Bretagne ([www.grandebretagne.gr](http://www.grandebretagne.gr)), overlooking the Greek Parliament at Syntagma Square, has been linked with many historical events in the Greek capital. One of the most celebrated landmarks in the city, it was designed by Theophil Hansen, a Danish architect responsible for many neoclassical buildings in the 19<sup>th</sup> century. For more modest budgets, Plaka Hotel ([www.plakahotel.gr](http://www.plakahotel.gr)), at the heart of one of Athens' most charming

quarters, will dazzle you with views of the Acropolis from its rooftop garden.

## WHERE TO EAT

For a truly unforgettable culinary experience, head to Archeon Gelsels (Ancient Flavors) ([www.archeongelsis.gr](http://www.archeongelsis.gr)) in the up-and-coming quarter of Psyrri and discover what ancient Greeks ate and drank 25 centuries ago. With ancient Greek décor and music, and waiters playing the part, you can eat stuffed piglet and drink oenomei (wine and honey), but you will not find a single fork in sight. Stuffed piglet serves 10 people and should be

ordered two days in advance. For traditional allresco dining at the heart of Monastiraki, head to Maiandros (Greek for "meander") ([www.maiandros.com.gr](http://www.maiandros.com.gr)), a coffeehouse and restaurant with live Greek music every Tuesday and Thursday night.

## WHAT TO SEE

The Ilias Lalaounis Jewelry Museum ([www.lalaounis-jewelrymuseum.gr](http://www.lalaounis-jewelrymuseum.gr)) is devoted to jewelry and other decorative arts. Its collections, mainly carved in gold, have been inspired by nature, technology and ancient Greek art, with the meander taking center stage.